21세기 대전건축의 주역

The Major Players of Taejeon's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송용호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Song Yong-Ho

편집디렉터의 원고청탁을 수락한 후에 삼십대 건축가들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대표적인 작품이요' 하고 자신있게 나설 이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의 작가적 입장은 이렇소' 하고 특정하게 어떤 이를 내세우기도 마땅치 않고… 하는 등등의 생각으로 여간 고민한 게 아니다. 별 뾰쪽한 수없이 시간만 축내다가 원고독촉을 몇 번 받은 끝에 궁여지책으로 삼십대 중반의 건축가 몇몇을 우선 만나보기로 했다. '만나서 지역건축에 대한 관심사들을 나누다 보면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겠지?' 삼십대중반을 잡은 것은 중반이라는 것이 막연하게나마 평균적인 연령의 대표성을 띠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추석 전에 제자인 이풍욱(칸건축사사무소) 소장에게 모임주선을 부탁하였더니 '연휴기간이라 연락하기가 어려우니 추석연휴가 끝난 후에 만나자' 는 전갈이었다. 연휴가 끝난 다음날 여러 건축사들이 출연하여 만든 주식회사 한밭건축 회의실에서 모임을 주선한 이 소장과 권육기 건축사(주식회사 한밭건축에서는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구성원의 호칭을 특별한 직명없이 그냥 건축사로 부른다)와 강석관(한밭건축) 대리를 만났다. 재미있는 일은 열살 단위로 구분하는 삼십줄 연령대의 대표성을 삼십대중반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주선된 모임에 대한 신의 조크였는지 아니면 도우심이었는지 우연하게도 권 건축사(삼십대후반)와 이 소장(삼십대중반)과 강 대리(삼십대초반)는 대전지역의 삼십대건축가들의 초, 중, 후반에서 각각 한 명씩 나온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적어도 삼십대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 셈이다. 오랜 망설임과 기다림 끝에 시작된 사십대와 삼십대의 대화는 짧지만 그러나 진지한 만남의 자리였다.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말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상대방이 '적정한 정도의 신상프로필을 갖고 있는가?' 는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의 대담도 이 신상프로필 확인으로 말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대전의 삼십대건축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적 · 시대적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또한 이들이 걸머지고 펼쳐나갈 대전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이 지역 건축가들의 잠재적 능력 및 그 개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기대하고 있는지?' 와 이외의 대전에서 벌어질 모든 도시건축적 사항들을 세 사람의 화자들로부터 신빙성있게 끌어내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석한 건축가들에게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또 전에 작업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느 것인가?' 와 곁들여 본인의 건축적 가치관부터 물어보았다.

권 건축사는 '실무라는 차원,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것들과 지면과 책자 등에서 이야기되는 건축이론적 전개나 사고 또는 건축 철학적 개념들이 난무한다. 그 속에서 우리가 프로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도 어렵고 어느 정도 깊이있게 해야하는지는 다만 작업과정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하느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능이나 경제성 또는 건축주의 요구조건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기가 건축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업을 해내기는 어렵다' 고 말한다. 그는 그에 대한 처방으로 '건축인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 과 '이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스승의 출현이 필요하다' 고 역설한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의 안식은 결국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얻는 것'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건축가 자신의 노력이 동반될 때 주위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건축적 관심사가 '건축물과 땅의 관계와 같은 건축의 관계성과 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동양 타임월드

백화점 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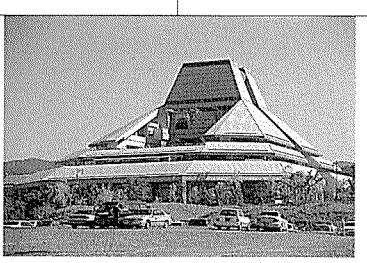
벽 등의 형태적 처리 등등에 관심이 있다' 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그가 참여했던 기억할 만한 작품으로 장곡경, 일사빌딩 프로젝트를 꼽았고, 현재 '유성구청 스포츠센터의 현상설계경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 한다. 이 소장은 '충남대학교 83학번 84학번들이 주축이 된 구가라는 그룹활동을 통해 멤버들이 각자의 건축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한 관심사는 대전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대전건축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무엇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대전건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건축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모던건축의 발전과정 등 근대건축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있다. 디자인캠프 9차와 10차에 튜터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의 학교건축교육이 건축실무를 할 때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실무를 하다보면 경제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건축설계안은 매우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그 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내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다' 며 '현실적인 조건에 부응할 것' 을 희망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축사 수는 이미 만 명을 돌파해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선진국 수준이나 건축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며 나름대로의 건축활동 환경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다. 그의 건축적인 관심은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능의 충족이 선행되는 형태의 이미지 구현, 건축물의 주변과의 맥락에 대한 고려, 지역성의 건축에 대한 반영'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했던 작품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 판암동 성당, 부여 K씨 주택, 그리고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건축관을 모두 쏟아 부었다며 대덕문예회관현상 출품작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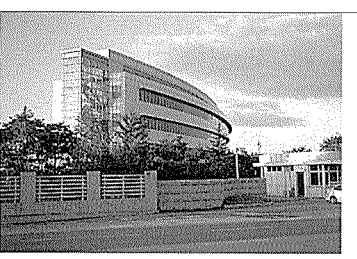
강 대리는 '동아공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목원대학 그리고 서울의 건축사사무소 앙가주망에서 수련했다. 공고, 대학, 사무소를 거치면서 각각의 경우마다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단계마다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감을 느꼈다. 특히 앙가주망에서는 여러 가지 설계에 많이 참여했는데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 그는 고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건축 재료, 예를 들면 흙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등을 연구하고 싶어한다. 아직은 실무의 경력이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기가 대단하다. 참여했던 것 중에서 서산 수석장로교회를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았다.

21세기 전반기 미래의 건축은 지금은 삼십대인 젊은 건축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들이 건축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꽃피울 수 있도록 쾌적한 건축활동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동시에 향후의 세계적 무한경쟁에서 우리의 도시 건축문화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적 도시건축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 건축사, 이 소장, 강 대리와 대담을 나누면서 이들의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삼십대의 건축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대전의 도시 건축의 앞날이 밝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런 열정과 사상을 갖게 된 건축적 토양과 자양분은 어떠한 것일까? 독불장군 없듯이 이들이 그만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기까지는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건축전문가 단체들의 왕성한 그룹활동이 그 배경이 된다. 대전과 대전 근교에 10여 개의 4년제 정규대학에 건축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오늘날 대학의 정규 건축교육은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판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다만 여기서는 대학교육이 미친 영향이나 공과는 논외로 하고 삼십대의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단체 및 그룹활동들을 위주로 살펴본다.

가장 큰 그룹활동의 줄기는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연구원 설계학교의 디자인캠프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튜터포럼이다. 설계학교장 김억중 교수의 리더십으로 대전의 삼십대 젊은 건축가들이 교수이든 건축사이든 총집결해서 이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일규(우송대) · 한필원(한남대) · 이관섭(한남대) · 김도식(목원대) 교수, 권육기 건축사, 유병구(CNU건축) · 강희완(조형건축) 소장, 고성희(서울대 박사과정)씨 등의 삼십대들이 운영위원이다. 튜터

학연산(충남대)


평송 청소년 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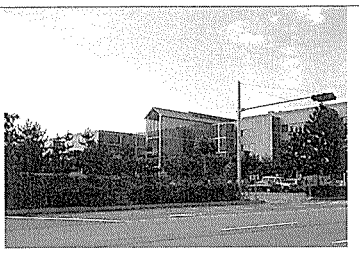

대덕연구단지(동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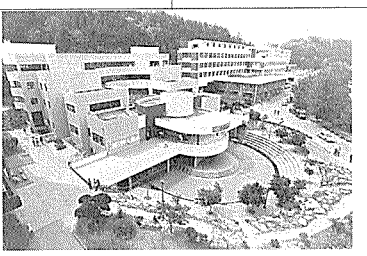
포럼은 39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선발된 멤버들이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캠프에서 정예건축가 양성을 위한 튜터로 봉사하게 된다.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엄, 현상설계 공모전을 수시 개최함으로써 지역 건축인들의 전문성 고양, 지역의 특성있는 자료의 발굴 및 축적, 입상한 건축학도들의 시상을 통한 설계의욕 고취 등의 그룹활동을 활발하게 벌리고 있다.

또 다른 그룹활동의 줄기는 대전건축연구재단 연구원 학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스터디그룹 활동이다. 송하영(대전산업대) 교수가 리드하는 시공분야, 최중현(우송대) 교수가 리드하는 CAD분야, 최 율(건양대) 교수가 리드하는 IBS분야, 오덕성(충남대) 교수가 리드하는 도시설계분야, 신경재(한남대) 교수가 리드하는 구조분야 등의 5개 그룹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삼십대 건축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들 스터디그룹들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활동의 결과를 연구보고서나 전문서적 등으로 출간할 예정들이다. 한편 삼십대 이상의 건축가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대학내의 과외활동그룹들을 간단하게 개괄해 보면 한남대의 시공간, 목원대의 제네바, 충남대의 구가 등을 비롯하여 각 대학마다 여러 개씩의 작품작업실 및 연구서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릇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뜻은 곧 의지이니 관심의 동인이 된다. 바꿔 말하자면 관심이 없으면 뜻을 둘 수도 없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어디에 뜻을 두는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건물을 생산하는 데에 뜻을 둔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된다. 곧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건축가가 성공하는 길이다. 건축가가 아닌 일반인도 물건에 관심이 많을 진데 하물며 좋은 건축을 생산하는데 뜻을 둔 건축가들에게는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더욱이 다른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건축공부며 건축을 아는 건축가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다.

이런 생각에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대전지역의 삼십대 건축가들은 '도대체 어떤 건물에 관심을 갖는가?' 를 알아보기 위해 권, 이, 강 세 젊은 건축가에게 질문했다. '대전에서 최근에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건물은 어느 것인가? 마음에 들어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가는 것도 말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강 대리가 '공들여 다듬은 것으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물의 깔끔함이 눈에 띈다' 고 하자, 이 소장이 '건물과 주변도로의 축의 관계 설정, 내부공간과 건물형태가 구조체계와 잘 맞아 떨어졌다' 고 얼른 그 말에 동조한다. 그러자 권 건축사가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과 영향을 갖고 도시적 공공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비교 분석해 보고 싶은 것' 으로 동양 타임월드 백화점과 세이백화점을 예로 든다. 이 소장은 '충남대학교 학연산 교육연구동은 학교내의 다른 건물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평송수련원이 주는 이미지는 그 건물의 중요도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건물들과 주변여건의 조화에 관심을 표한다. 이들 세 사람의 젊은 건축가는 끊임없이 건물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각각에 대하여 본인들의 좋고 나쁜 느낌들을 토로 해낸다. 대덕연구단지의 동부그룹연구소, LG연구소 등에 대한 고도의 관심표명과 둔산 신시가지의 충청 하나은행 등의 고층 오피스건물들, 제3정부종합청사, 대전시청사, 지방법원 등의 관공서 건물들의 도시적 이미지에 대한 '저 건물들의 설계자들이 저 자리에 다시 설계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형태와 매스로 할까?' 라는 시니컬한 비판적 발언, 한편으로는 좀 오래된 것들로 구시가지의 도청건물, 천주교 대흥동 성당 건너편의 농업시험소 건물, 원동 사거리 북동쪽의 건물의 형태적 특이성 등등에 대하여 얘기하느라 끝이 없다. 이 얼마나 큰 젊은 삼십대 건축가들의 지역건축 및 도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권 건축사, 이 소장, 강 대리 이들 3인의 선발된 대표 아닌 대표자들과 3시간 가량의 대화와 그들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그들이 속한 대전지역 삼십대 건축가들의 건축작업에 대한 열기와 사상과 활동을 그리고 바라는 바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음악에 비유하여 볼 때 그들이 지금 열과 성을 기울여 활동하는 모습은 대전의 21세기 도시와 건축의 빛나는 모습을 알리는 전주곡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면관계로 그들이 제시한 여러 건축가, 단체 및 그룹의 명단과 활동내역을 상세히 게재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LG화학기술연구소


대전대학교 학생회관

둔산 신시가지
(충청 하나은행, 사학연금 둔산회관)